

#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기업 인정제 이모저모

**HONGKONG**  
**JAPAN**  
**ENGLAND**

법규 준수, 고용 창출, 납세의 의무를  
넘어 비즈니스 활동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고려하는 CSR의  
시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더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대부분의 절차는  
중앙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회공헌 기업 인정제’  
시행을 앞두고, 해외 지자체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인정  
제도를 살펴본다.

해외에서 시행하는

## HONGKONG (CHINA)



인증 구분

기업

기관

\*홍콩에서는 100인 미만 제조 기업과 50인 미만  
비제조업을 중소기업(SME)으로 간주

### 케어링 컴퍼니 Caring Company

홍콩사회봉사연합회(HKCSS-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홍콩 복지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서 ‘케어링 컴퍼니’로 인증하는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기관과 사회서비스 부문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바람직한 기업시민 정신을 증진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018년 기준 총 3,697개 기업과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전체 기업의 54%가 중소기업이다.

특히 ‘케어링 컴퍼니’ 인증 기업 중 210개 이상의 기업이 15년 이상 연속해서 이 상을 수상하고 있다. 첫 해 인증 받은 기업의 80% 이상이 장기적이고 충성스러운 파트너가 되었다. KPMG, 마이크로소프트, 캐논, 캐시아피시픽, 딜로이트, GE 등이 대표적이다.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삼성물산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이상 인증받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2011년부터 연속해서 선정된 바 있다.

케어링 컴퍼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 이상의 기준 인증 기업/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업 윤리 침해 및 신뢰도 하락, 유죄 판결 등의 경우로고 사용권은 취소된다.

최소 1년 동안 홍콩에서 운영된 기업 및 그룹으로 운영 시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별도로 등록

최소 1년 이상 홍콩에 설립된 정부 부처, 법령 기관, 상공 회의소, 전문 기관, 국제 서비스 클럽, 자선 재단, 병원, 대학 및 3차 교육 기관

\*홍콩에서는 100인 미만 제조 기업과 50인 미만  
비제조업을 중소기업(SME)으로 간주

### 평가 항목

부문	내용	기준
지역사회 돌봄 Caring for the Community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 자원 이니셔티브를 투자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과 기술을 커뮤니티에 공유한다.	자원봉사, 기부, 멘토링, 취약자 고용,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조달
직원 돌봄 Caring for the Employees	직원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고 경영진이 직원 관심사에 귀기울이고,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직원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 직원 안전, 직원 복지, 직원 가족 책임, 일과 삶의 균형, 잘 구축된 의사소통 구조, 이익과 지원, 관련 수상 및 기타 인정
환경 돌봄 Caring for the Environment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기의 질을 향상시킨다. 생산 프로세스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환경 보호 실행, 친환경 제조 공정, 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 파트너십, 환경 라벨 및 기타 인정

\* 3개의 영역 모두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JAPAN



일본에서는 사이타마, 요코하마, 우쓰노미야, 가와구치 등 2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CSR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사이타마와 요코하마의 지역 공헌기업 인증제도를 살펴본다.

## 사이타마 CSR 챌린지 기업

일본 사이타마현 남동부에 위치한 사이타마(さいたま)시는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다. 2009년 취임한 시미즈 하야토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도입한 CSR 인증제는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매년 인증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약 5년간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인증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보도 자료 홈페이지 등에 해당 기업을 소개하고 전시나 박람회를 개최해 기업 PR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연구회 및 인증 기업간의 'CSR 커뮤니티'를 조성해 자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시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에서 인증 기업에 가점을 주기도 한다.

사이타마 시의 CSR 챌린지에서 특이한 점은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중소업체'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 별로 자본금과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 기업 및 유한 책임 조합, 협동조합에만 인증 로고가 수여된다. 조건도 까다로워서 사이타마 시내에 본사 또는 본점이 위치해야 하며 3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

2018년도에는 총 11개의 기업이 인증된 바 있다.



인증 로고

## 평가 항목



### 1 지키는 CSR

40 문항

체크리스트는 크게 '지키는 CSR'과 '펼치는 CSR'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0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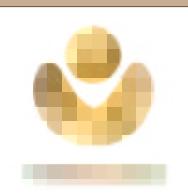
'지키는 CSR'(40항목)은 조직 문화, 조직 거버넌스, 정보보안, 노무 관리, 생산관리 등의 조직 내부 부문과 제품, 서비스 조달 같은 부문 조직 외적 부문, 환경 경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 부문으로 나뉜다.

'펼치는 CSR'(20항목)은 경영전략, 다양성, 인적 투자 같은 조직 내부 부문과 사업의 핵심 가치 창조, 이해관계자 소통 같은 조직 외적 부문,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한다.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키는 CSR'에서 60% 이상, '펼치는 CSR'에서 3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조사원이 직접 파견을 나가 현지 조사를 하고 확인 여부를 심사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이타마시의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 요코하마 지역공헌 기업

요코하마(よこはま)는 도쿄에 이어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2007년부터 지역에 대한 공헌 정도(지역자원 활용, 고용, 환경, 품질 등)를 나타낸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우수 공헌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요코하마에서 정의하는 '지역공헌 기업'은 '지역과 사회를 인식하고, 지역 공헌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 사업에 임해,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특히 선정된 기업에게 홍보 지원과 더불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인증에 도전하고 선정된 기업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인증 로고

## 평가 항목 1 CSR 시스템



'지역지향 CSR 관리 시스템 규격'에 근거해 지역공헌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

## 평가 항목 2 지역성

구분	항목	내용
필수	컴플라이언스	법령 준수 선언문, 납세증명서, 인허가
중요	지역 사회공헌	지역봉사활동, 문화 사업, 지역 기부
	현지 활용, 지향	업자 성정(현지 기업 우선), 현지 브랜드 판매
고용		여성 활약 촉진(요코하마 균형상 인정 등) 출산육아 지원, 개호지원제도, 고령자, 장애인 적극 고용, 건강 경영 추진(요코하마 건강 경영 인증 등급)
환경		인증 취득(ISO 등), 지역환경 활동 참여, 재활용
품질		인증 취득(ISO 등), 고령자 대응 제품, 건강 배려 제품
일반	재무 실적	흑자 결산, 회계 장부, 감사 기관 설치
	노동, 안전, 위생	인증 취득(OHSAS 등), 건강, 노무 상담 창구 설치
	소비자, 고객 대응	고객 대응 창구 설치, 고객 대응 교육 훈련 제도
	정보 보안	PC 문서 관리, P마크, 고객 정보 관리

\*중요 항목 중 '지역 사회공헌'과 '현지 활용, 지향' 중 한 가지는 필수 조건이며 최상위 인증을 받을 경우 두 가지 모두 필수임

# ENGLAND



## 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는 영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컨설팅 기관이다. 1982년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영국 왕립 자선단체로 발족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크고 작은 기업 및 이들과 파트너를 맺는 대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2019년 5월 현재 500여 곳의 커뮤니티 멤버(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 BITC는 회원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 간, 기업과 정부 조직 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국 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힘 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업 책임 지수(CRI)'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 사업(CSR 360)이 대표적이다. 세계 67개국에 네트워크 1300여 곳을 만들었다. 지역 사회공헌 기업 인증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눈에 띈다.

### 커뮤니티 마크(Community Mark)

지역 사회에 시간과 기술 및 자원을 투자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커뮤니티 마크'는 지역사회 투자에서 리더십과 탁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국의 국가 표준이다. 커뮤니티 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이 인증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회사에 장기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총 46개 기업이 커뮤니티 마크를 획득했으며 현재 34개 기업이 '커뮤니티 마크'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심사를 위해 독립적인 검사단이 별도로 마련됐다.



인증 로고



인증 상판

### 올해의 책임 기업

#### (Responsible Business of the Year)

BITC 멤버십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올해의 책임 기업(The Responsible Business of the year)' 시상식을 개최한다. 축하 행사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갈라 디너 자리를 갖는다. 여러 기업의 우수 사업 등을 공유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축제 같은 장인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리더 및 정책 결정자와의 네트워크 자리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꼽힌 '올해의 책임 기업'은 2016년 Veolia, 2017년 Anglian Water, 2018년 Lloyds Banking Group 등이다. 시상 분야는 다양성, 성평등, 지속 가능성, 디지털 혁신 등으로 다양하다. 15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시상식은 언론을 통해 중개한다. 2019년 올해의 책임 기업 후보로는 BNP Paribas, Boots UK, Heathrow Airport Ltd, The Scottish Salmon Company, Sir Robert McAlpine 등이 추려졌으며 7월 9일 열리는 갈라 디너에서 최종 우승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 책임 기업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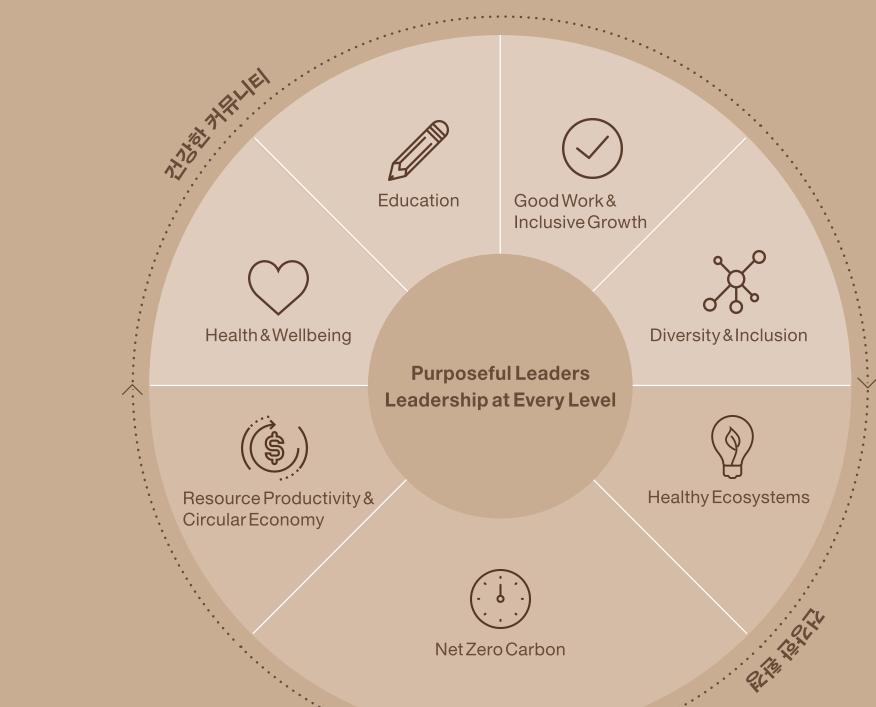
지역사회 책임 기업은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에 건강한 지역 커뮤니티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두는 것이다. 책임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반의 모든 레벨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상업적 성공과 주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와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

-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기회(예: 리소스 사용 효율성 향상, 신규 시장 액세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 사이버 보안, 작업 액세스, 불평등)를 관리하는 방법

- 고객 지원 및 역량 강화, 변화하는 업무 특성 수용, 사회에 기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생산적인 가치 사슬

- '덜 해를 끼치는' 접근 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진정한 힘을 기르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쟁 우위 확보, 변화하는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 보유 및 개발



## 참고 자료

- 2018 국외기관 교류협력보고서 (영국 / 2018.7.1~9 / 서상목, 우용호, 이준호 차장)  
2018 사회공헌 인정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